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20년에 걸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 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9:3)."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그 분의 이름을 영원히 그 곳에 두실 것인데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항상 그곳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그 자체가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실 때 그곳이 이름 그대로 성전,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의 이름을 두시며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주셔서 항상 함께 해 주실 때 만이 그곳이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을 건축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4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먼저는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그 분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며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따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성전일지라도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6-7절)."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11:42) 그 중에 20년 동안은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였습니다(9:20). 또한 세상 어느 왕보다 많은 재산과 지혜가 있는 왕이었습니다(10:23). 하지만 솔로몬 왕이 실패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미 열왕기상 3장1절에서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였다고 운을 떼어 놓았습니다.

게다가 오늘 11장1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의 딸 뿐 아니라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

하여 아내로 맞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애굽과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 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방 여인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라합이나 룻 등의 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였을 때 그들에게서 단호하게 이방 신들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 더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여인들이 여호와를 따르기를 거부하고 이방 신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솔로몬은 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11장4절에 보면 오히려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방의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스다롯과 밀곰을 따랐고 그모스와 몰록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으며 이방 여인들이 그 신들을 따르는 것도 막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다(6절)고 말씀하고 있고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 중 가장 악한 죄인 이방 신들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솔로몬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11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시대였지만(왕상5:4) 이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왕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이 후 이스라엘을 나누어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도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9:5)."

하지만 처음에도 말씀 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린 사람은 솔로몬 자신이었습니다. 11장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왕은 후궁이 칠백 명이요 첩이 삼백 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 이상 건물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는 시대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 성도 즉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실 때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었듯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때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16-17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건물이 성전이 아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